[AI Economist] DOL · CLAIMS · 노동

美 주간 실업수당 청구: 신규는 예상 하회, 계속청구는 예상 상회해 재취업 둔화 신호

2026.10.23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신규는 예상 밑돌고 계속청구는 예상 웃돌아 — "해고 없는 완만한 냉각" 그대로

10 월 17 일로 끝난 주간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 만 4 천 건으로 집계되어 시장 예상치 20 만 건을 6 천 건 하회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한 주 동안 새로 해고되어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한 사람 수를 보여주는 지표로,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신규 해고가 줄었다는 뜻이다. 4 주 이동평균도 19 만 7,750 건으로 전주보다 1 천 건 내려갔고, 수준 자체도 전년 같은 주(23 만 1 천 건)보다 3 만 건가량 낮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보험실업률도 1.1%로 전년(1.3%)보다 낮은 역사적 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고 쪽에서 보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결론이다.

이번 감소폭에는 두 가지 일회성 요인이 섞여 있다. 하나는 계절적으로 원래 줄어드는 시기인데 실제 감소폭(-10.1%)이 계절조정 모델이 예상한 감소폭(-7.4%)보다 더 컸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전 주 오하이오·테네시 등에서 일시적으로 늘었던 제조업·교육서비스 해고가 이번 주에 그대로 되돌려진 것이다. 즉 지난주 반짝 늘었던 해고가 이번 주 다시 가라앉은 것이지, 해고가 구조적으로 더 줄어드는 추세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이르다. 다만 이 두 요인을 걷어내도 19 만 4 천 건이라는 레벨 자체가 낮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

반대로 계속청구는 172 만 8 천 건으로 예상(172 만 건)을 8 천 건 웃돌았고, 4 주평균도 171 만 1 천 건으로 4 천 건 올라왔다. 계속청구는 실업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 수로, 해고가 늘어서가 아니라 한 번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취업하는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는 재취업·채용측 신호에 가깝다. 다만 이 증가 속도는 완만하고, 전년 동기보다는 여전히 22 만 건 낮은 수준이며, 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전 프로그램 합계 계속청구(10 월 3 일 주간)는 오히려 4 만 건 넘게 줄어 방향이 엇갈린다.

종합하면 이번 발표는 연준의 긴축 국면 판단에서 "해고 쪽에서 추가 인상 논거를 약화시킬 냉각 증거가 나왔는가"라는 질문에 여전히 '아니다'로 답한다. 신규청구 예상 하회와 낮은 보험실업률은 해고측 견조함을 재확인시켰고, 10 월 28 일 회의 동결 전망을 바꿀 재료는 아니다. 계속청구의 예상 상회만이 이번 발표에서 유일하게 긴축 명분을 미세하게 흔드는 재료이지만, 전년비와 전 프로그램 합계가 반대 방향이라 아직 추세로 부르기는 어렵다. 앞으로는 계속청구가 172 만 8 천 건 수준을 유지·확대하며 4 주평균 상승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신규청구 19 만 4 천 건의 다음 주 수정치가 이번 판단의 지속 여부를 가를 분기점이다.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10-22 (이번)	10 월 17 일로 끝난 주간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19 만 4 천 건으로 시장 예상(20 만 건)을 6 천 건 하회하며 해고즉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함을 다시 확인시켰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명분을 흔들 만한 냉각 증거는 이번 발표에서 나오지 않았다.
2026-10-15	10 월 9 일로 끝난 주간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19 만 9 천 건으로 시장 예상 20 만 건을 1 천 건 밑돌았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는 171 만 건으로 예상에 부합했다. 해고도 늘지 않고 재취업 지체도 심해지지 않는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논거를 흔들 재료는 없었다.
2026-10-08	이번 주간 신규실업급여청구 발표는 해고 경로에서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는 신호를 전혀 내놓지 않았고, 따라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명분을 흔들 재료가 없는 발표였다.
2026-10-01	9 월 마지막 주 미국 실업수당 청구 지표는 해고와 재취업 두 측면이 함께 역사적 저위로 더 내려가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카드를 접을 만한 노동시장 냉각 신호가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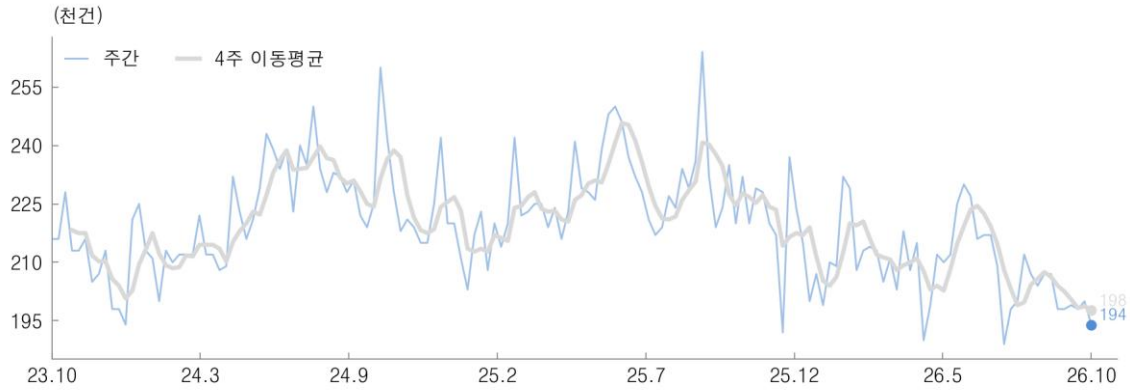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 신규·계속청구 핵심 지표

지표	이번 주	직전 주(수정치)	변화	맥락
신규청구(계절조정, 10/17 주간)	19 만 4 천 건	20 만 건	-6 천 건	전년동기 23 만 1 천 건보다 낮음
신규청구 4 주평균(계절조정)	19 만 7,750 건	19 만 8,750 건	-1 천 건	10/3 주 19 만 8,250 건서 재차 하락
신규청구(비계절조정, 10/17 주간)	17 만 2,390 건	19 만 1,711 건	-1 만 9,321 건(-10.1%)	계절요인 예상 감소폭(-7.4%)보다 큰 폭
계속청구(계절조정, 10/10 주간)	172 만 8 천 건	170 만 3 천 건	+2 만 5 천 건	전년동기 194 만 7 천 건보다 낮음
계속청구 4 주평균(계절조정)	171 만 1 천 건	170 만 7 천 건	+4 천 건	9/26 주 171 만 500 건과 유사
보험실업률(계절조정)	1.1%	1.1%	보합	전년 1.3%보다 낮은 수준 유지
전 프로그램 합계 계속청구(10/3 주간, 비계절조정)	148 만 5,572 건	152 만 5,605 건	-4 만 33 건	전년동기 168 만 6,437 건보다 낮음
일회성 해고 되돌림(10/10 주간 신규청구, 비계절조정)	오하이오 -4,493 / 테네시 -2,642	전주 +3,918 / +3,477	되돌림	전주 일시 증가분 상쇄

핵심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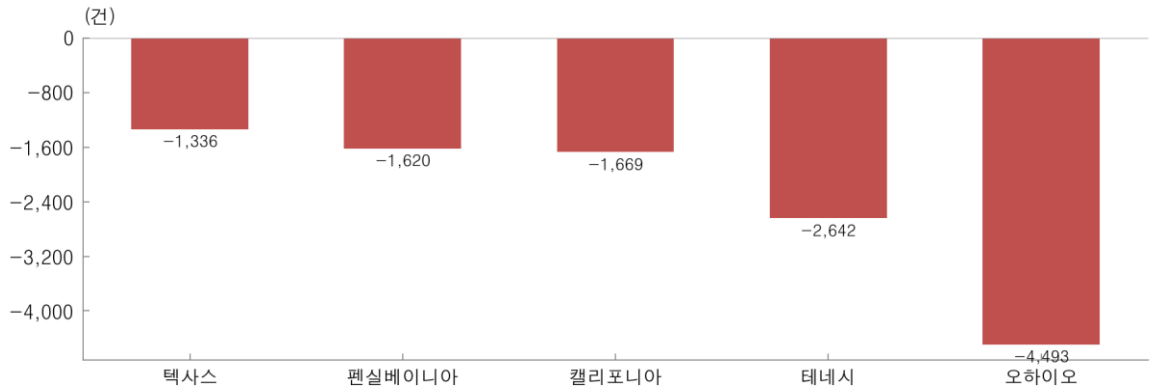
지표	값
4 주 이동평균(건)	197750
전주대비(건)	-6000
계속 실업청구(건)	1728000
신규 실업청구(건)	19400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주간) 3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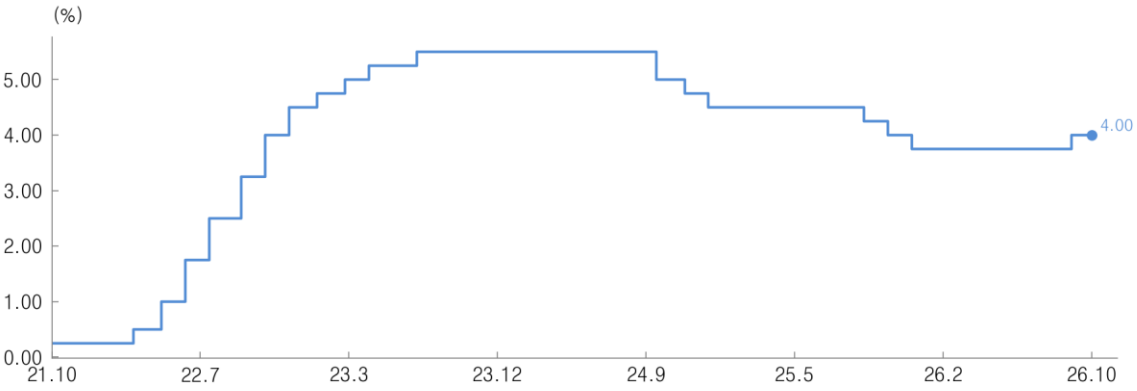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0 월 17 일 주간 신규청구 주별 되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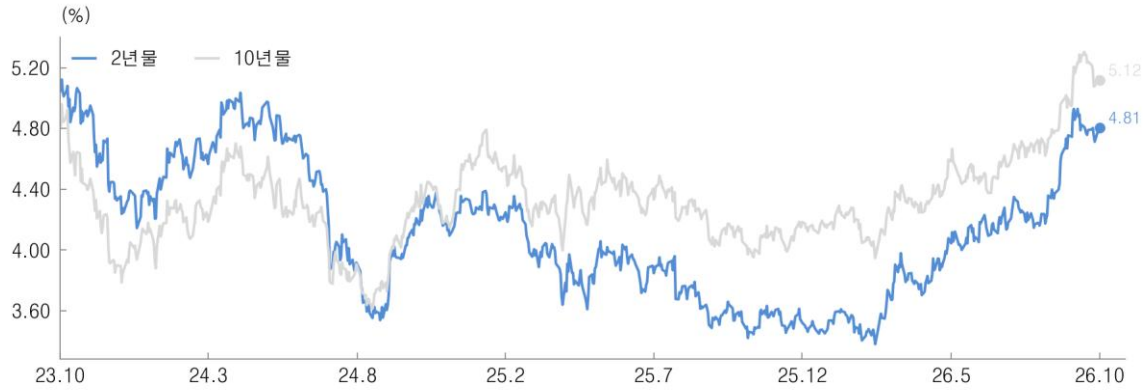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정책금리(연방기금 목표 상단) 5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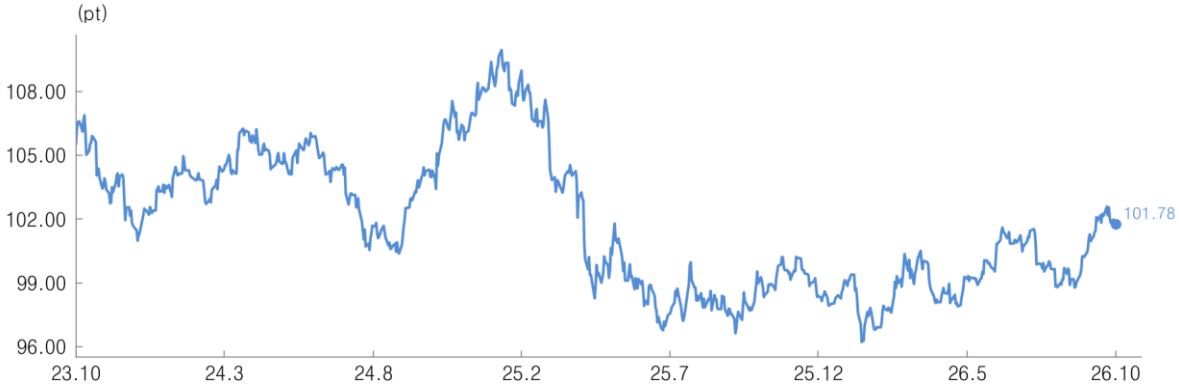
자료: CEIC(2026-10-22 기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금리 (2 년·10 년)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지수(DXY)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